

윤석열정부 경제정책 평가 시리즈

# We Crashed ⑤

## 우리 청년·여성은 절망했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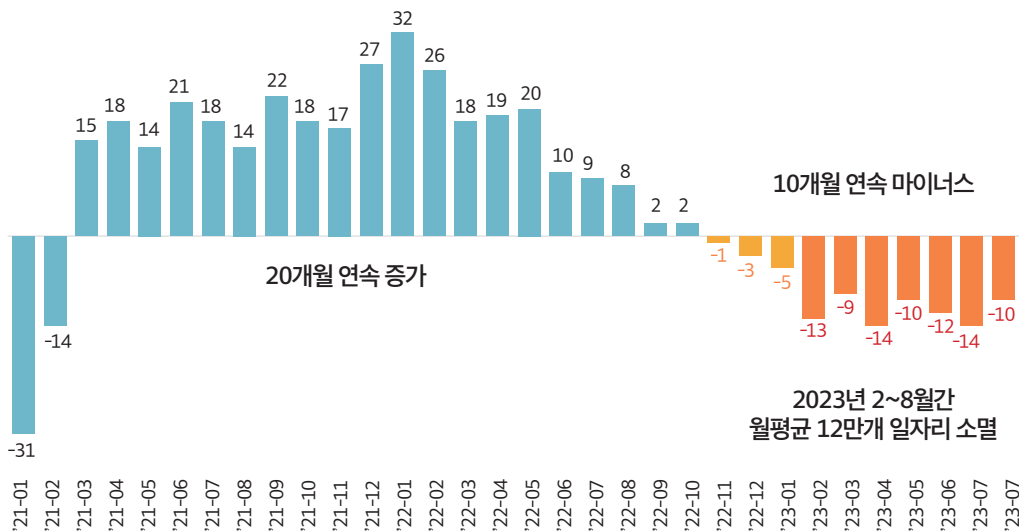
# 청년일자리 폭망



## “대통령은 청년을 ‘국정의 동반자’라고 했는데” 청년일자리, 10개월째 마이너스 행진

- 청년일자리, 2021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0개월 연속 증가
- 윤석열정부 출범 후 감소세로 접어들다 6개월 만에 마이너스
- 최근 7개월 동안 전년대비 월평균 12만개 일자리 소멸

청년 취업자수 증감 (전년동기대비, 만명)



자료 : 통계청 고용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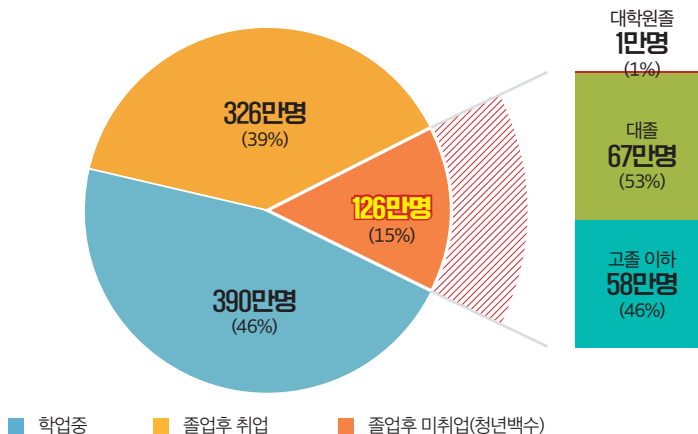
## 청년백수 절망



### “아프니까 청년이다? 청년이니까 아프다” ‘청년백수’ 126만명 시대

- 청년(15~29세) 842만명 중 126만명(15%) 졸업 후 미취업 상태
- 청년 고용률 7개월 연속 하락, 8월 47% 기록

청년백수 126만명 시대 (2023년 5월)



자료 :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

# 청년예산 폭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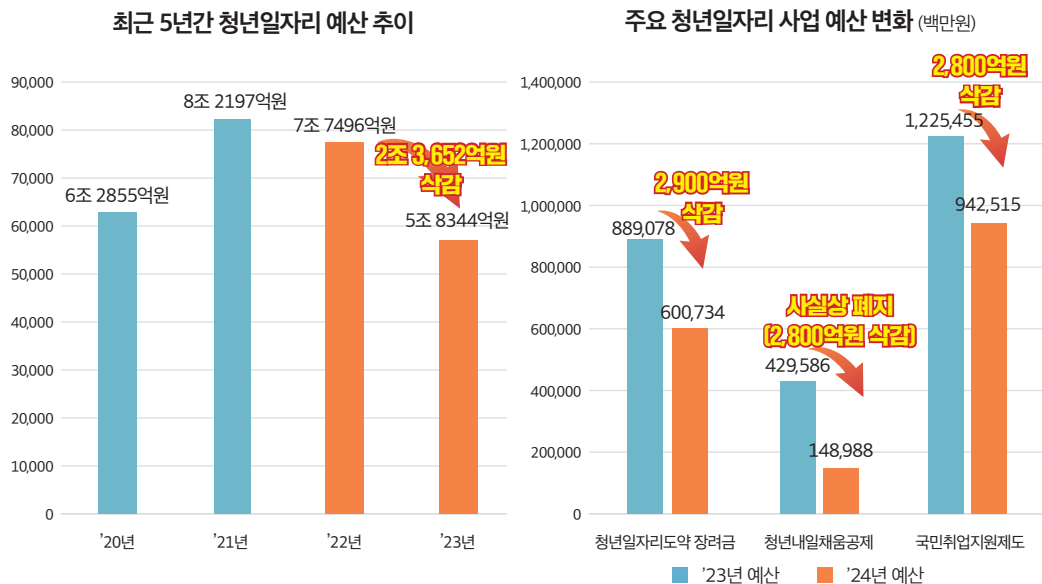


## “말로만 청년일자리”

### 청년일자리 예산, 2년 연속 삭감

- 청년일자리 예산 2023년 2조 3,652억원 삭감에 이어 2024년에도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8,500억원 삭감
  - 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: 2,900억원 삭감
  - ②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\* : 2,800억원 삭감
    - \* 중소기업 재직 청년 목돈마련 지원, 2024년은 기존 가입자만 지원
  -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: 2,800억원 삭감

#### 청년일자리 예산



자료 : 연도별 중앙정부·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, 고용노동부 202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

# 청년부채 절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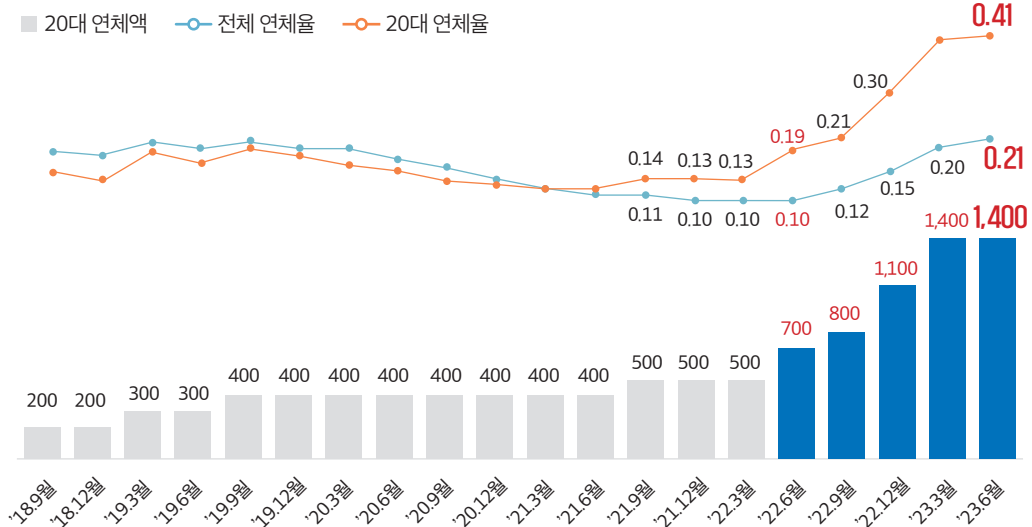


**“제발 청년 재정건전성 좀 살피주세요”**

**연체율 급등, 역대급 개인회생 신청**

- 20대 주택담보 연체율 2배 급증 : ('23.6월) 0.19% → ('23.6월) 0.41%\*  
\* 전체 연체율(0.21%)의 2배
- 20대 주택담보 연체액 2배 급증 : ('23.6월) 700억원 → ('23.6월) 1,400억원
- 20대 신용대출 연체율 2배 급증 : ('22.6월) 0.7% → ('23.6월) 1.4%

20대 청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및 연체액 (% , 억원)



자료 : 금융감독원 19개 은행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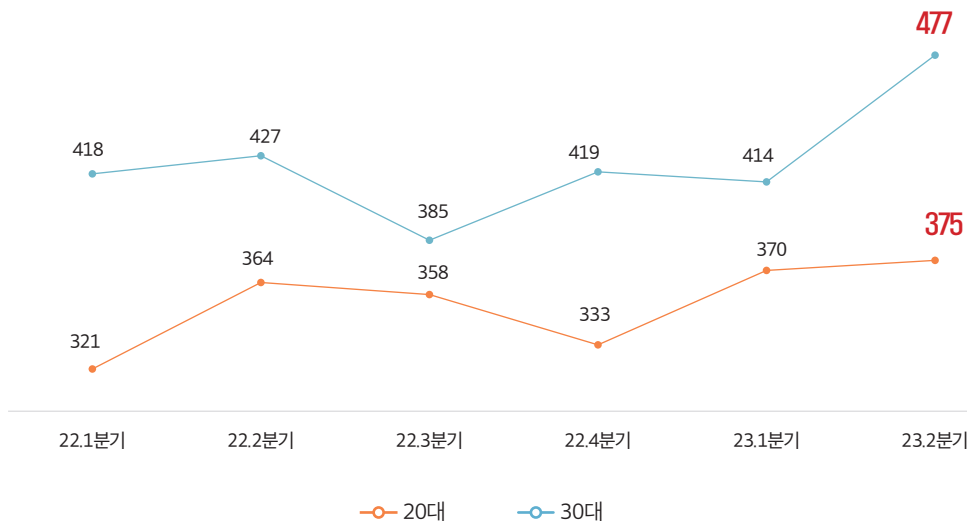
# 청년의 삶 절망



## “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” 청년 자살사망자수 증가세

- 20대 자살사망자수 : (‘22.4분기) 333명 → (‘23.2분기) 375명  
30대 자살사망자수 : (‘22.3분기) 385명 → (‘23.2분기) 477명
- 청년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\* 높은 실정  
\*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(전국경제인연합회, 2022)  
: 20대 이하 25% > 60대 16% > 30대 14% > 50대 13% > 40대 12%

청년 자살사망자수 추이 (명)



출처 : 통계청 성·연령별 특정사망원인 사망자수(고의적 자해, 잠정치)

# 여성안전 절망



## “여성이 절규할 때 정부는 없었다” 성범죄 9.4% 증가

- 윤석열정부 이후 통신매체 이용 음란(39.4%), 공중밀집장소 추행(24.8%), 성적목적 장소침입(23.1%), 강제추행(12.2%) 등 성범죄 모두 증가
- 신림동 칼부림 사건, 분당 서현역 흥기난동 사건에 ‘장갑차 공포’ 조장
- 성범죄 증가하는데, 2024년 관련예산 대폭 삭감
  - ‘초·중·고 성 인권 교육사업’ 예산 전액 삭감
  - ‘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’ 예산 반토막

### 윤석열정부 시기 성범죄 증가 실태 (건)

	성범죄 전 체	통신매체 이용음란	공중밀집 장소추행	성적목적 장소침입	강제추행	강간 등	카메라등 이용촬영
문재인정부(A)	9,806	2,012	235	143	3,561	1,886	1,970
'22,2분기(중복)	10,216	2,784	292	144	3,596	1,799	1,601
윤석열정부(B)	10,723	2,804	294	176	3,994	1,713	1,744
증가율(B/A)	9.4%	39.4%	24.8%	23.1%	12.2%	-9.2%	-11.5%

\* 2개 정부 동일시간 비교 : 문재인정부('21.3/4-'22.1/4), 윤석열정부('22.3/4-'23.1/4)

자료 : 대검찰청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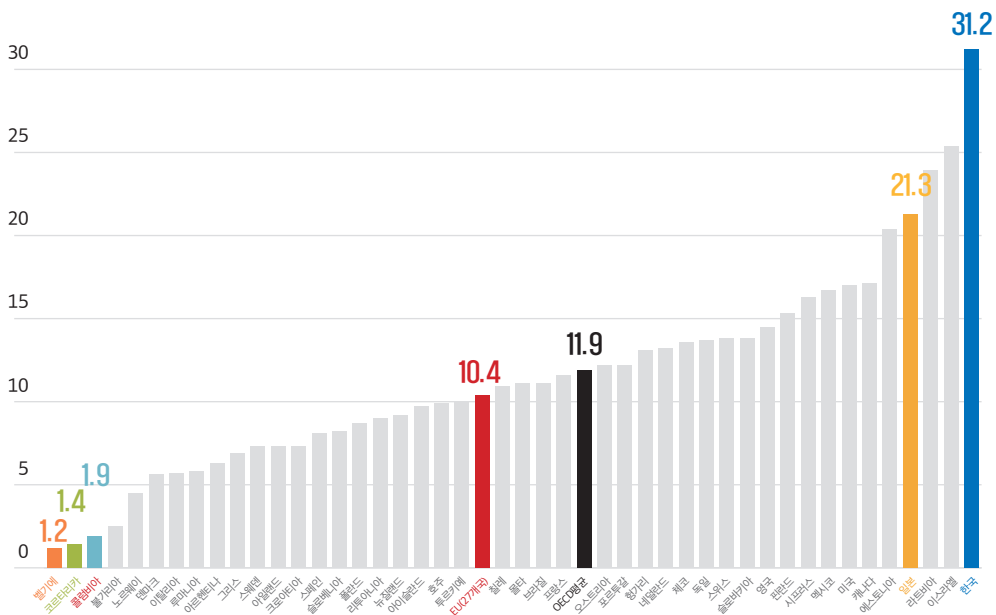
# 여성임금 폭망



## “남성 100만원 벌 때 여성은 65만원” 남녀 임금 격차, 27년 연속 OECD 꼴찌

- 2022년 성별 월평균임금 격차 35% (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)  
: 여성 268만원 vs 남성 413만원
- 역량, 연령, 학력, 경력 등 통제하더라도 한국 남녀 임금 격차 가장 큼 (민주연구원, 2023)  
: 한국(33%) > 일본(29%) > 프랑스(14%) > 영국(13%)
- 1996년부터 2022년까지, 27년 연속 OECD 임금격차 1위 유력  
: 2022년 한국 31.2% >> OECD 평균 11.9%

국가별 성별 임금 격차 (%)



주 : 2022년(한국 포함 11개국) 또는 가장 최근년도

자료 : OECD Gender Wage Ga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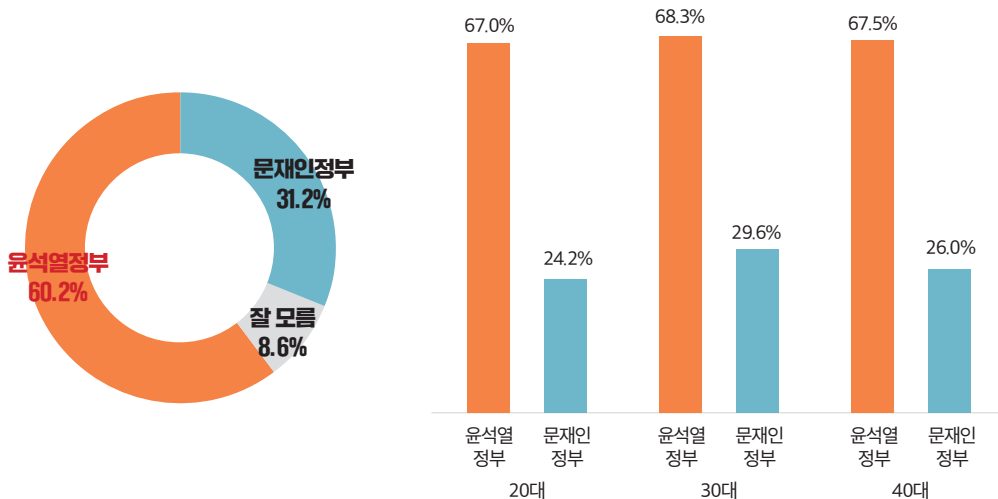
# 잼버리 폭망



## “화장실 청소가 엉망인 게 前정부 탓이라고?” 국민 60%가 윤석열정부 책임이라고 평가

- 파행의 직접적 도화선, 화장실·숙소·무더위쉼터·해충·식사 문제는 실무 준비 부족 탓
- 중앙정부(여가부·행안부·문체부), 지자체(전라북도), 한국스카우트연맹,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
- 평창 동계올림픽이 모범사례, 대통령과 총리가 처음부터 직접 챙겼어야

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 주체에 대한 여론조사



자료 : 미디어토마토(2023.8.11)